



‘made in China 우유’ 못먹겠네

중국 유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인 명뉴(蒙牛)가 이번에는 암을 유발하는 첨가물 때문에 국가질검 총국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명뉴가 생산하는 고급 우 유제품인 ‘터룬쑤(特倫蘇)’에 각종 암을 유발하는 인슐 린양 성장인자(IGP-1)를 첨가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명뉴는 터룬쑤라는 우유에 뼈를 만드는 ‘OMP’ 라는 물질이 함유돼 인체 골밀도를 증가시킨다고 선전했다. OMP는 명뉴가 자체 개발한 물질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터넷 유명 인사인 팡저우쯔(方舟子)가 명뉴의 OMP라는 물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OMP는 명 뉴가 만들어낸 용어로, 명뉴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OMP 실험 결과를 보면, IGP-1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IGP-1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성장을 돕는 호 르몬의 일종인데, 수치가 높을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팡저우쯔는 “일반 우유의 IGP-1 함유량은 5ng/ml인데 비해 터룬쑤에는 5.65~16.8mg으로 수만배에 달한다”며 발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명뉴는 “OMP는 다른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MBP(Milk Based Peptide)와 같은 것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질 검총국은 11일 사이트에 “현재 모든 식품첨가제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며 명뉴의 터룬쑤 우유에 함유된 OMP 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 다”고 말했다고 베이징완바오(北京晚報)는 전했다.

또 국가질검총국은 “IGF-1은 기존에 사용하던 식품 첨가제가 아니므로, 현재 사용 기준이 없다”며 “이 물 질을 일부러 첨가했다면 현행 규정에 어긋나 명뉴에 OMP 물질 첨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에 따라 명뉴는 2월 이후 생산된 터룬쑤 우유에는 OMP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있다. 명뉴는 자체 검사 결과, OMP가 인체에 무해하지만 위생부의 검사 결과 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바이두(百度)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 문조사를 한 결과, 네티즌의 60%가 터룬쑤에 발암물 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70%가 넘는 응답 자가 터룬쑤 우유를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명뉴는 지 난 ‘멜라민 분유 파동’ 때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바 있다.

미국, 농무성 저지종 ‘생산 수명’ 최고 품종으 로 평가

미국 농무성은 최근 발표한 젖소 유전능력평가에서 미국내 6개 젖소 품종중 생산수명 최고 젖소는 저지종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98년부터 '02년까지 출생한 젖 소 349만두를 대상으로 조사된 평가에서 저지종은 도 태전 착유우군에 사육된 기간을 평가한 생산수명에서 다른 품종젖소들에 비해 180일정도 긴 평균 33.6개월 (1천25일)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에 어셔가 967일, 밀킹 쇼트혼이 948일, 브라운 스위스 930일, 홀스타인 844일, 건지가 803일간 평균적으로 착유우군에서 사육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수명은 미국 농무성이 발표하는 젖소 순수익지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수중 하나로 검정성적등을 활용하여 계산되 며 착유기간이 긴 젖소보다는 산차가 많은 소에 가중 치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젖소 이름을 불러주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

젖소 개체별로 이름을 지어주고 자주 불러주면 이름 이 없는 소에 비해 연간 평균 두당 258리터의 우유가 더 생산된다고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영국내 516개 목장을 대상으로 관리 형 태에 따른 생산성과 행동, 동물복지등의 영향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목장의 46%가 젖소 개체별 이 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목장의 우유생산량이 이갈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 목장의 48%는 젖소를 긍정적으로 인간답게 관리하면 착유기

질이 좋아져 우유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답하였다. 연구자들은 젖소를 개체별로 인간답게 관리하고 자주 접촉하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생산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유값 폭락에 성난 農心

유럽 전역에서 우유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그리스에서 촉발된 농민 시위가 인접국 불가리아, 라트비아로 번졌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농민들이 산발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AFP통신이 지난 2월 5일 전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날 약 100명의 축산업자가 우유값 폭락에 항의하며 루마니아와 연결되는 국경도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라트비아에서도 축산업자들이 정부에 대해 우유값 폭락을 막고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농민 시위의 주원인은 우유값 파동이다. 원자재 및 식품 가격 폭등 속에 2007년 말 정점에 달했던 도매가 기준 우유값이 작년 한 해 동안 반 토막이 난 것. 도매가가 폭락한 만큼 소매가격도 떨어져 수요가 축소되면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해 결국 우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AFP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공동농업 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원칙을 강화하려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유값이 폭락하자 자유시장 원칙을 저버리고 버터저장 지원금, 수출보조금 지급 등 축산농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호주, 낙농단체 유럽 유제품 수출보조 재개 명비난

호주 낙농가연맹은 최근 재개된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보조 재개를 명비난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연맹 관계자들은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도하회의가 유럽 연합,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와 같은 개발도

상국들의 정치적인 의지 부족으로 결렬되었다며, 이같은 협상 타결만이 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과 같은 무역장벽을 타개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식량부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최근 6개월간 폭락한 유제품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치즈, 버터, 분유 수출보조를 재개하고 3월부터는 탈지분유 등의 수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호주는 전세계 유제품 공급량의 15%를 담당해 왔다.

소 분뇨 활용한 연료전지 첫 선

젖소의 분뇨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연료전지에 활용하는 기술이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다카하시 교수와 스미토모상사의 연구그룹에 의해 세계 처음으로 개발됐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인간의 배설물에도 응용할 수 있어 향후 '화장실 발전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분뇨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발효시켜 추출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전기분해해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추출하는 구조다.

다카하시교수는 약 200만엔을 들여 실험장치를 제작, 발효시켜 약 20kg의 분뇨에서 0.2W의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사산에서는 발전효율을 높이는 것에 의해 홋카이도 일반 축사에서 1일 배출되는 분뇨 6~8톤으로 일반가정의 3일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발전하는 장치로 일본 메이커들이 앞다퉀 가정용 기기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현재는 도시가스과 프로판가스, 등유, 메탄올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있어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CO2도 발생되지 않으면서 원료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㉞

(자료출처 : www.dairyherd.com, 일본농업신문, www.madison.com, The Wall Street Journal, Marketwire 발행)